보성군-순천시 여자만 갯벌 보호 맞손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
제1회 공동 협력 회의
통합 관리 인식 보전 방안 논의

보성군과 순천시가 지난 7일 보성-순천 갯벌인 여자만 보전을 위한 제1회 순천시-보성군 공동 협력 회의를 갖고 공동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과 순천시가 세계자연유산인 여자만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보성군과 순천시는 최근 보성-순천 갯벌인 여자만 보전을 위한 제1회 순천시-보성군 공동 협력 회의를 갖고 공동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국의 갯벌'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보성-순천 갯벌을 지자체 단독 관리가 아닌 광역 개념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보성군과 순천시는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과 확대, 블루카본으로 각광받는 염습지 복원, 학교 연계 갯벌 교육장 조성, 주민주도 유산 관광 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했다.

또 협력 회의는 양 지자체가 번갈아 가며 개최하기로 했으며, 향후 관련 전문가 및 단체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토론회도 준비하기로 협의했다.

여자만은 보성·순천·여수·고흥 등의 지자체에 걸쳐 광역권으로 분포된 국내 유일 반폐쇄형 갯벌이다.

타지역에서 볼 수 없는 탁월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고, 법정보호종 서식 등 생물 다양성이 우수해 철새 기착지로서 가치가 높다. '한국의 갯벌'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여자만 갯벌을 지자체 단독 관리가 아닌 광역 개념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양 지역 지자체 협력이 추진됐다.

보성군 관계자는 "지자체 협력 회의를 통해 논의된 다양한 국책 사업을 전남도와 해양수산부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공동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곡성군 지역 대표 먹거리 '곡성 5미' 선정

참게 매운탕·능이 닭백숙·토란탕 등

곡성군이 지역 대표 먹거리로 '곡성 5미(味)'를 선정하고, 관광 자원화하기로 했다.

곡성군은 최근 5미 선정을 위해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음식명인, 식품명장 등 전문가가 참여한 곡성 5미 선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선정했다.

1미는 '참게 매운탕과 은어 튀김'으로, 섬진강 중류에 자리 잡은 지역답게 곡성에서는 오래전부터 즐겨 먹던 향토 음식이다.

2미에는 '석곡 흑돼지 석쇠구이'가 선정됐는데, 곡성 토종 흑돼지에 매콤한 양념을 버무린 후 석쇠에 올려 숯불에 구워내는 방식으로 식탁에 오른다.

3미는 '능이 닭곰탕과 능이 닭백숙'으로, 곡성군의 능이는 섬진강의 습기와 분지 지형의 높은 기온 차로 향이 더욱 깊어 닭은 손님이고 능이가 주인공이라는 평을 받는 음식이다.

4미에는 곡성이 전국 토란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토란 주산지인 만큼 '토란탕'이 선정됐다.

마지막 5미는 지역 특산물인 흑돼지, 토란, 멜론, 와사비를 한 상에 담아낸 '곡성깨비정식'이 선정됐다.

곡성군은 영상 및 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곡성 5미 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곡성 5미 음식으로 간편요리세트(밀키트) 제품도 개발해 지역 먹거리를 상품화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조용래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 심사위원장(왼쪽)과 나병곤 여수시 관광문화교육국장이 수상을 기념해 사진을 찍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 국가브랜드 대상 7년 연속 수상

국제해양관광휴양도시 부문

여수시가 세계 3대 광고제인 뉴욕페스티벌 주최 국제해양관광휴양도시 부문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을 7년 연속 수상했다.

이번 대상은 분야별 경쟁력 지수를 평가해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브랜드를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국가브랜드 경쟁력 지수(NCI)는 브랜드 인지도와 대표성, 만족도, 충성도, 글로벌 경쟁력, 종합호감도 등 지표별 소비자 평가에 의해 산출된다.

여수시는 국제해양관광휴양도시 부문에서 종합점수 77.01점을 받아 신안, 남해, 완도, 거제 등 여러 도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나병곤 여수시 관광문화교육국장은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휴양도시, 여수시의 브랜드 파워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며 "여수섬섬길로 대표되는 섬 관광 활성화, 웰니스·온택트 관광 개발, 글로벌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등 국내 해양관광의 트렌드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광양시 "배알도 섬 정원 관광 인증사진 보내 주세요"

내달까지 SNS 이벤트

광양 배알도 섬 정원을 찾은 한 관광객이 포토존에서 인증사진을 찍고 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가 오는 5월31일까지 배알도 섬 정원에 봄 콘셉트 포토존을 설치하고, SNS 이벤트를 추진한다.

시는 배알도 섬 정원의 안심관광지 선정을 기념하고, 섬 정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화사한 봄을 선물할 방침이다.

광양관광 공식 인스타그램 '광양투어'를 활용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배알도 섬 정원 포토존에서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본인 인스타그램에 광양 여행을 태그하고 업로드하면 된다.

시는 5월2일과 6월2일, 2회 추첨을 통해 회당 50명에게 2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선물할 계획이다.

김성수 광양시 관광과장은 "배알도 섬 정원이 안심관광지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고 방문객에게 특별한 배알도 섬 정원을 선물하기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배알도 섬 정원에서는 지난 2일 버스킹에 이어 9일에는 광양시립국악단 공연이 펼쳐졌고, 오는 16일과 30일에는 광양시립합창단의 버스킹이 오후 2시부터 펼쳐진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살고싶은 고흥"…공영민 고흥군수 출마 선언

공영민〈사진〉 고흥군수 예비후보가 "군민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대화하며 진정한 군민통합을 이루어 서로 편을 나누지 않는 군민간 갈등이 없는 고흥을 만들겠다"며 출마를 공식화 했다.

공 예비후보는 11일 출마의 변에서 "기획재정부 23년과 제주특별자치도 5년간의 근무 경험을 살려 낙후된 고흥에 획기적인 산업과 생활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변화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여 문화예술이 융성하는 고흥, 가고싶은 고흥을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정고흥의 농수축산물을 브랜드화하여 6차 융복합산업으로 육성하고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잘사는 고흥 살고싶은 고흥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 후보는 "30년 후 사라지는 고흥이 아니라 인구 10만이상의 웅군을 비전으로 두고 그 발판을 마련하여 군민모두가 행복한 고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

구례군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구례군이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마련과 자립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 참여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사업은 일하는 저소득층이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근로 및 저축 등 지원 요건을 만족할 경우 본인저축액에 정부지원금인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통장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 I 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대상이며,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한 후 3년 만기 시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하면 본인저축액 360만 원과 월 30만 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의 이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 II 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4인가구 기준 256 만원)인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가구가 대상으로, 이 역시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해 지원금 용도를 증빙하면 본인저축액 360만원과 월10만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최대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61-780-2449)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